

# 2억1000만년 전 익룡 화석 ‘천풍’ 발굴

미 유타주 사막서...날개 폭 1.5m

미국 유타주의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된 약 2억1000만년 전의 새로운 익룡 화석이 공개됐다.

사이언스 매거진 등 과학전문 매체들은 최근 “익룡 화석이 오아시스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실 크기 공간에서 1만8000여 개의 뼈 화석과 함께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다리 네 번째 발가락으로 지탱하는 피부막인 날개의 폭은 1.5m가량이고 이빨은 코 근처에 날카롭게 튀어나온 송곳니 같은 것을 포함해 112개에 달했다. 아래턱 뼈는 밑으로 튀어나와 있어 펠리컨처럼 먹이감을 잡는 주머니가 있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눈구멍이 커 “환상적인 시력”을 가졌고, 날지 않을 때는 날개를 수직으로 접고 다 나리로 걸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화석에는 ‘천풍(天風:heavenly wind)’이란 뜻의 라틴어인 ‘칼레스티벤투스 한세니(Caelestiventus hansenii)’라는 학명이 부여됐다.

익룡은 비행에 적응하느라 뼈가 연약하며, 이 때문에 자동차에 치어 죽은 동물들처럼 뼈가 부서진 채로 발견되는 화석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굴된 C.한세니 화석은 두개골과 이빨을 비롯한 상당수 뼈가 온전한 상태여서 익룡의 진화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



익룡 상상도 <신화통신 제공=연합뉴스>

된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쥐라기에 앞서 약 5100만년간 지속된 트라이아스기에는 익룡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원시 익룡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밝혀줄 단서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C.한세니가 발견된 것이다.

C.한세니는 지금까지 발견된 익룡 화석 중 가장 큰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사막 환경에서는 가장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화석은 또 사막 익룡의 출현시기를 6500만년 앞당기며 사막에서 발견된 익룡 중 가장 오래된 화석으로 기록됐다. 당시의 익룡들은 지금의 유럽이나 그린란드 등 주로 바다 근처에서 발견됐다.

C.한세니는 쥐라기 초 영국 익룡과 가장 비슷하며, 이는 C.한세니가 날리 퍼져있었음은 물론 트라이아스기 말기 초대륙 판게아의 분리로 화산 폭발이 잇따르면서 초래된 대멸종을 극복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됐다. 트라이아스 대멸종기에는 지상과 바다의 동식물 절반가량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한세니가 발굴된 곳에서는 총 9종의 파충류 화석이 발견됐다. 브릿 박사는 이와관련, “기묘기에 익룡을 포함해 많은 동물이 오아시스로 몰려들고 물이 바닥 나면서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로 화석의 보고가 됐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지난 8일 화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다문화 가정 라디오교육 ‘화순시그널’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이 직접 라디오 기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제공>

## “타향살이 어려움 이웃과 나눠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라디오 제작 프로그램 ‘화순시그널’ 다문화 여성 12명 참여...한국생활 경험 등 원주민들과 공유

“타향살이의 어려움 이웃과 나눠요.” 타향살이 여성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방송도 한다. 시청자 미디어재단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다문화 가정 대상 라디오교육 ‘화순시그널(Signal)’을 운영한다. 미디어센터는 이주여성들이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문

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순군과 화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진행된다.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다문화 여성 12명은 직접 겪은 한국 생활과 경험을 라디오에 담아 이를 다른 이주여성이나 원주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8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첫 수업을 가진 뒤 12주 동안 기초 미디어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또 ‘포토에세이’, ‘가족에게 보내는 음성편지’, ‘공익광고’ 등 다양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방송을 만든 뒤에는 공개 방송을 열어 완성된 콘텐츠를 다른 이주민, 가족들과 함께 듣고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도서산간 드론택배·스마트금융

‘우체국뉴스룸’ 검색하세요

우체국에 관한 주요 정보를 뉴스 형식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우정사업과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소통채널 ‘우체국뉴스룸’(postnews.kr)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우정사업의 주요 정책과 혁신활동의 현장, 우체국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선보여진다.

우체국뉴스룸에서는 집배물류 전략, 스마트금융,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우정사업본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영상 등을 만날 수 있다.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도서·산간지역 우편물 드론배송 시험운영에 관한 내용도 실려있다.

또 집배원이 전하는 여행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우체국뉴스룸’으로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디지털 소통 시대에 발맞춰 쉽고 편리하게 우정사업본부와 만날 수 있도록 우체국뉴스룸을 만들었다”며 “혁신적인 사업운영과 다양한 현장의 모습을 통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우체국뉴스룸

POST NEWS | 온문서신 | 우체국소식 | 우체국서비스 | 우체국알뜰폰 | 생생한현장 | 고객참여

산간지역에서 드론배송 시험운영 실시

우정사업이슈 | 우체국서비스 | 우체국알뜰폰

우체국과 우정사업본부의 미래 비전... | 기술은 믿은 우표, 통신과 디지털로 그... | 보안카드 · OTP 없이 송금하세요

우정사업본부장은 “디지털 소통 시대에 발맞춰 쉽고 편리하게 우정사업본부와 만날 수 있도록 우체국뉴스룸을 만들었다”며 “혁신적인 사업운영과 다양한 현장의 모습을 통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체국뉴스룸 화면 갈무리.

## “인도, 2022년까지 유인우주선 띄운다”

모디 총리 독립기념일 연설 미·러·중 이어 세계 4번째

인도가 오는 2022년까지 유인우주선을 발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5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 레드포트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기념식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지금까지 유인우주선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3개국뿐



모디 총리

이다. 인도는 유인우주선 개발을 통해 이들 나라와 나란히 우주항공 강국 대열로 올라서겠다는 전략이다. 모디 총리는 “인도는 우주과학 분야에서 늘 앞서왔으며 이제 2022년 또는 그 이전에 인도의 자녀가 인도 국기를 손에 들고 우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1969년 인도우주연구기구

(ISRO)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에 나섰다.

ISRO는 인도 최초 인공위성인 ‘아리아바타’를 만들어 1975년 당시 소련 로켓에 실어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인도는 2008년 달 탐사 위성 찬드라얀 1호를 발사했다.

2014년에는 자체 제작한 화성탐사선 망갈리안을 화성 궤도에 진입시켰다.

인도는 지난 몇 년간 유인우주선 발사를 위해 우주왕복선 개발 등에 힘쓰며 우주항공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연합뉴스

### 우체국알뜰폰 위탁 판매업체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13곳 선정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알뜰폰 위탁판매 업체 13개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능력, 고객불만 처리능력, 재무상태

등을 평가해 세종텔레콤, 스마트텔, 에넥스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신규업체 4개사를 포함한 13개 업체를 선정했다. 통신망별로는 SKT망 4개 업체, KT망 4개 업체, LGU+망 5개 업체다. 선정된 업

체는 오는 10월 말까지 우편과 계약한 뒤 내년부터 3년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가 현장방문 등에서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다.

/연합뉴스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창사66주년

**광주일보**

토지 거래가 자주 이루어 지는 곳!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곳!  
투자 하실분과 일하면서  
배우실 분을 모십니다.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